

# 신인들이 뛰고있다 고참들도 바빠졌다

## 총선 물갈이론 급부상에 삼복 정치권 '요동'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총선 여론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추석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부각시키고 조직역량 강화에 나서는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물갈이론'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정치 신인들도 지역구민들과 접촉 강화 등을 통해 인지도를 최대한 높여 추석 여론에서 차기 총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하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조직 강화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 민심을 확고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19대 국회 진출에 따른 정치적 비전 제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개혁특위가 내년 총선 경선 방안과 관련, 다수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기

존 당원 및 대의인 관리에 집중해왔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호의적인 지역구 민심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개혁특위의 경선 방법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다수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지역구 조직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현역 국회의원에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도전할 계획인 정치 신인들도 운동화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3선 중진인 김효석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짧은 피' 수혈에 대한 지역 민심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관망적 입장을 보였던 정치 신인들이 본격적인 총선 도전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이 북을 지역구를 다지고 있으며 김경진 변호사도 북갑 지역구에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또한, 손학규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남재 비서실 차장이 서구 을에 도

전하겠다는 입장이며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진우 JC 전 중앙회장이 북갑 출마에 나설 태세다.

서구 갑에서는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구에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명진씨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남·진도·완도에서는 박광은 MBC 논설위원이 민심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담양·곡성·구례에서는 이개호 전남도 부지사와 김재두 전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암·장흥·강진에서는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주·화순에서는 박선원 전 참여정부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활발한 지역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올려놓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여론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추석 민심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치 신인들은 지역구 행사 참석은 물론 각종 소모임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은 과감한 '물갈이'를 통해 광주·전남의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여론 물결에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노르웨이에서 온 제인즈(7)가 18일 오후 조선대에서 열린 '2011 조선대학교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앞치기를 배우고 있다. 이번 행사는 조선대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세계 16개국에서 120여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4일까지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 전남 6개 시군과 공동 현안 논의 '광역행정協' 구성 제안

포사격장 이전 등 협의

광주시가 인근 전남 6개 시·군과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광산구 평동 군 훈련장 이전, 제3순환도로 건설, 광주호 복원 등 현안사업을 둘러싸고 장성, 영광, 담양 등 인접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들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나주 혁신도시사업, 광평 빛그린공단산업단지, 학군조정 등 전남의 인접 시군과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안건들이 있는 만큼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운태 광주시장은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번영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인접 시·군이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광역행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군은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등으로 모두 광주시와 인접해 있고 최근 현안 사업들이 얽혀 있는 지자체다. 광주

시는 일단 전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광역행정협의회의 틀을 구성할 예정이다.

최근 광주시는 국방부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며 광산구 평동군 훈련장을 장성 및 영광으로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장성군과 군의회, 영광군 등이 적극 반발하고 있으며,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제3순환도로(나주 급전~장성 진원~담양 대덕~화순 도곡~나주 구간 100.86km) 역시 장성군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중심이 되고 시·군 부단체장이 배석하는 방식이나 광주시장과 시장·군수가 직접 협의회를 갖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며 "광주와 전남이 문자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2012년 국비 확보 노력 ▲4대강 사업 관련 추가 지역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등을 각 시·군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생생 자치 광주시 간부회의 들여다보니

### "뇌물 챙기는 공무원 뿌리뽑겠다"

강시장 '신상필벌' 강조

김운태 광주시장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시장은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어처구니없는 비리가 적발됐다"며 "업무에 돈이나 술을 받아 챙기는 행위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하며, 일 잘하는 공무원은 발굴해 승진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상필벌이 엄하게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신바람나는 사회"라며 "공직자는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며,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져 지금은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하면 자녀 교육 등은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방형 공모로 발탁된 감사관에는 더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감사관도 비장한 각오로 이번 감찰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은 있을 필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일일이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국장은 일을 잘해 업어주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굴해 추천해달라"며 "그런 직원은 승진도 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7일 수차례에 걸쳐 선물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 6급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脫호남 선언' 김효석 의원 상한가

수도권 4~5개 지역구서 잇단 출마 러브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김효석 의원이 4~5개 지역구에서 잇달아 러브 콜을 받는 등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서울 강남 지역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구에 도전, 민주당 총선 승리의 주역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출마 선언으로 신선한 충격을 몰고 온 김효석 의원에겐 수도권 4~5개 지역구에서의 출마 권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포와 파주, 안양 등의 경기도 지역구는 물론 인천 남동구 등

에서도 출마 권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마 권유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구들은 호남세와 민주당세가 비교적 강하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정치적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에 출마, 한나라당의 강남 벨트를 무너뜨리거나 종로나 동작, 은평 등 한



나라당거물급 정치인들과의 정면 승부를 통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은 없다"며 "나를 키워 주신 지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호남을 떠나 수도권 출마에 나선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지역에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

량을 키우고 호남의 자존심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내년 총선 지역구 선택과 관련,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성일로점(합동공관) 성일로 입구: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 시인회관) 030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보천로)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림2001) 서울 아문점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4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시면역점(사면로터미) 051818-8800 서면역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구청)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업로터미)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구청) 0551745-9870 창원점(한양은행)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4거리) 053425-4440 상역점(상역4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카데믹) 053425-7575 경북 포항점(국가리) 0540244-5110 안동점(구 안동점)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 06286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터미) 063022-5728 군산점(구 시청앞) 063446-0198 익산점(백사시장4거리) 063838-5900 남원점(시정4거리)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동)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미)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충청 천안점(천안역) 0416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백로교) 043220-1177-8 충북 청주점(삼천로7가)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2거리) 033647-0588 춘천점(철도호텔) 033823-5110 제주 제주점(명동로터미) 06475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CE 0120 CE마크 인증, 유방공통체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동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동광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86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